

사회

겨울철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움'

광주 6만가구 공급 안돼 LPG·등유 사용 난방비 부담

설치비 수백만원도 문제

광주시 동구 주택에 사는 이모(73)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서럽다. 난방비 걱정 때문에 겨울엔 대부분 노인 정에서 생활한다. 이씨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 집에 있을 수조차 없다"며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는데 적은 돈을 내고 따뜻하게 지내는 아파트 주민이 부럽다"고 하소연했다.

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54)씨 역시 겨울나기가 힘들다. 어린이집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작년 겨울에 한 달 LPG 요금으로 100만원 이상 들었다. 김씨는 "해양도시가스와 남구정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광주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가스 보급률(91.2%)을 자랑하지만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급이 적어 이번 겨울도 유난히 어렵게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단독주택 19만 1138가구 중 71.3%인 13만 6312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10가구 중 3가구는 난방연료로 도시가스 요금보다 비싼 LPG와 등유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실정에도 광주시의 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은 여의치 않다. 각 지자체의 바람과는 달리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미실시(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업금지 방침), 사유지 골짜기와 관련한 민원 등으로 보급률을 끌어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원조례 등 여러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이르는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급 대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것은 500만원에 이르는 설치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문제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설치비 부담 때문에 노인과 저소득층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복구 한 주택가의 경우 한 가구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와 이에 따른 비용까지 총 6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때문에 설치에 포기하기도 했다.

주민 김모(58)씨는 "해양도시가스

측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꺼리고 있다"며 "어쩔수 없이 도시가스 요금보다 1.8~2배 비싼 LPG와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양도시가스 측은 신규배관 100m당 34가구 이상 혜택을 받아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과 협의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의 배관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도시가스 설치 시행사인 해양도시가스 측에 관련 예산을 늘려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란 추억' 밝으며 26일 오후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9도에 머문 초겨울 날씨 속에, 금남로를 걷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노란 은행 잎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추문 검사' 검사실서 성관계 인정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위헌성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정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에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은 10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 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관계에 갑박성이 있었는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합당한지 등이 구속영장 발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편의점 강도 방지 '한달음 서비스' 신고 10건중 9건 오인... 지구대 곤욕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등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도입된 광주지역 '한달음 서비스'의 신고 10건중 9건이 오인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아 치안력만 낭비되고 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광주지역 한달음 서비스의 오인 신고율은 98.4%에 달한다. 전국 평균은 96.4%, 부산과 대구는 각각 96.5%, 89%로 집계됐다.

한달음 서비스는 KT 집 전화의 수화기를 7초간 들고만 있어도 인근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출동하게 된다. 편의점, 금문방 등에서 강도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만 555곳이 가입했다.

하지만 정작 오인신고율이 100%에 가깝고, 실제 거격한 사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오인신고율이 높은 이유는 실수로 전화를 떨

어뜨거나 일반 전화를 걸면서 오래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주취자 등 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강력범을 잡기 위해 도입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곳은 일선지구대다. 하루에도 많게는 4~6건의 오인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보내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광주지역 한 지구대 관계자는 "한달음 서비스 신고는 강력범인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데 오인신고로 드러나 허탕만 겪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작 뾰족한 대책은 없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높은 오인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택시에 고의로 손 부딪쳐 갈취 복부경찰, 40대 검거

개인택시 기사인 문모(53)씨는 지난달 6일 밤 10시경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정차하는 순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46)씨의 오른쪽팔을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당황한 문씨는 치료비로 10만원을 건넨 뒤 목격자인 양산동까지 김씨를 전철로 데려다 줬다. 하지만 문씨는 며칠 뒤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도중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광주복부경찰은 26일 상습적으로 정차하는 택시에 부딪힌 뒤 금품을 뜯어낸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택시 기사들로 부터 45만20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를 수감하게 여긴 택시기사들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2차례에 걸쳐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중목욕탕 노인 사망 잇따라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노인들이 잇따라 사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경 광주시 동구 공동 한 사우나에서 이모(82)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식과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이씨는 이날 욕탕에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령에다가 지방까지 있는 이씨가 무리하게 목욕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동구 학동 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박모(73)씨가 욕탕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인(39)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박씨는 지난 2월에도 사우나에서 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령의 노인들이 사우나에서 무리하게 목욕을 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많다"며 "목욕 전 몸 상태 등을 충분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 거주 대학생 印 갠지스강서 의사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은 26일 "순천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황모(21)씨가 이날 오전 7시15분경 일행 2명과 함께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 소재 갠지스강에 들어갔다가 1시간여만에 순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서 재대면 뒤 복학을 준비하던 황씨는 얼마 전 한 여행사를 통해 다른 여행객 10명과 함께 인도로 단체 배낭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사퇴에 반하며 안철수 캠프 옆 건물에서 흥기를 들고 투신소동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제압당해 경찰서행.

○26일 서울중앙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7)씨가 이날 오후 2시6분경 서울 중로구 공평동 공평빌딩 바로 옆 6층 건물 옥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불러달라"며 흥기를 목에 겨누고 자살소동을 벌였다던 것이다.

○김씨는 "안 후보가 정치 경력이 없다고 정치에 못나"라며 1시간30분 동안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제압당했으며, 경찰은 폭력 혐의 등으로 인건 여부를 검토.

/연합뉴스

글로벌 인재 양성 NO.1 www.pkcoryo.co

뉴브릿지와국어학교, 북경고려학원

중국명문대학 입시, 중국조기유학

입학 설명회

중국 명문대학 입시 및 조기유학 입학 설명회

입시 2012년 12월 01일(토) 오후 2시

장소 광주 리틀치아나 중국어학원
문의전화: 062)233-9582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21번지)

대상 초, 중, 고등학생
•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결정한 학생
• 한국에서 수능미친 고3 학생
• 중국에서 전학을 결정한 학생
• 중국에서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

내용

- 중국입시에 대한 개황과 비전
- 2012학년도 중국입시 출제경향
- 2013학년도 중국입시 전망
- 북경 2학 3일 무료답사 안내
- 관리형 어학연수
- 중국 로컬학교 차인과정
- 중국 교과과정(중국명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 미국 교과과정(존스홉킨스대학 편입보장 프로그램)

뉴브릿지와국어학교 / 북경고려학원 | 문의전화 (02)3276-3390-1 / 070-8633-4451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90204-중-4738호